

〈구역모임 교재 / 2025년 11월 23일 주간〉
“ 내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 다 같이
- * **찬 송** : 자유롭게 / 다 같이
- * **합심기도** : 오늘의 구역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모인 장소의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 * **대표기도** : 지난 주에 예배드린 가정의 가족 중에서 한 분
- * **성경봉독** : 사무엘상 10장 17~21절

▶ A. 구역공과 ◀

1. 지난 한 주간동안 살면서 가장 감사하게 느꼈던 일이나, 주일영광예배 때 나눈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데로 물러나십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임을 알고 있음에도 상대가 원하는데로 해주었던 경험을 나누고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나누어 봅시다.
3.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마음을 부어주셨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섬기며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B. 공동체 성경읽기 ◀

월요(벧후 1~3장) 교회 내부의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와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강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며,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을 반박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를 촉구합니다.



화요일(유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본래는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쓰려했으나,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영광 앞에 흠 없이 서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수요일(요 1~2장)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만물이 그 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장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과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목요일(요 3~4장)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 준수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출생을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며, 사회적 통념을 깨고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금요일(요 5~6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두 가지 주요 표적(기적)과 그에 따른 교훈 및 논쟁입니다. 이 장들은 예수님의 신성(神性)을 증거하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임을 선포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시며, 자신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십니다.



토요일(요 7~8장) 예수님의 초막절 기간 중 예루살렘 방문과 가르침, 유대 지도자들과의 격렬한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자 되심이 강조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반박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주 일(요 9~10장)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자 '선한 목자'로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강조하며, 참된 믿음과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바리새인들)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강조합니다.



*** 성경을 읽고 난 후 각자 느낀 점을 나눕니다.**

*** 합심기도 :**

1.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도록.
2. 새 마음과 순종의 믿음을 주시도록.
3.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도록.

*** 찬송 및 헌금 :** 찬송가 38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역헌금을 드리겠습니다.

*** 봉헌기도 및 주기도문 :** 드린 예물을 위해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역헌금은 해외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군산삼학교회 교역자실(책임출제자: 박윤석 전도사)